

박상우 장관, “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추진” 강조

- 현장 체감 높은 정책 추진 위해 실무진과 직접 소통

… 시행령 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 -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5일(월)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(대회의실)에서 「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(1.10, 이하 공급대책)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0여 명과 함께 ‘내게 맞는 주택공급’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,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하였다.
-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, “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”하다면서,
 - “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,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 - 특히,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‘행동하는 정부’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·재개발 활성화, 1기 신도시 재정비,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이와 함께,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과제를 공유하였다.
- 고성우 사무관(주택건설공급과)은 「주택공급 활성화 방안」(’23.9.26.) 발표 이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험을 밝히며, 이번에도 단축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

- 박용선 과장(주택정비과)은 복잡한 재건축·재개발과 관련하여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방안을 제안하였다.
- 최병길 단장(도시정비기획준비단)은 이달 중 5개 신도시에 (가칭) 「도시재창조센터」를 모두 개소하여 사업 단계별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를 모두 들은 뒤, “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하여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”라고 하면서, “정책에 효과가 있는지도 항상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”을 강조하였다.

○ 이와 함께, “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에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만큼,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○ 소규모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 최우영 사무관은 “장관님께서 ‘여러분의 자리를 앞서 갔던 선배의 한 사람’으로서 하신 말씀이 친근하게 마음에 와닿았다”면서, “오늘 소통의 시간을 통해 함께 같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팀워크를 다지게 되었다”라고 소감을 말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‘끝이 아닌 시작’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.

2024. 1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